

쌍용자동차 호주 직영 판매법인 출범 3년만에 상반기 흑자 전환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114% 대폭 증가

쌍용자동차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호주 직영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쌍용자동차 최초의 해외 직영 판매 법인인 호주 직영 판매 법인은 2018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올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현지에서 출시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호주 직영 판매 법인은 설립 직후 자동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 차종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미디어 시승회를 여는 한편 호주 4x4 아웃도어 쇼에 참가해 차량 전시 및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사우스랜드, 하이포인트를 비롯한 대형쇼핑몰 전시 등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주력해 왔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렉스턴 스포츠를 협찬 중인 유명 방송인 폴 버트의 아웃도어 라이프 전문 프로그램 '스텝 아웃사이드 윗 폴 버트'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렉스턴 스포츠 또한 주요 타깃층인 40~50대 남성 고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수출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상반기 기준 호주 시장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14%, 뉴질랜드 시장 판매량은 43%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판매네트워크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충성고객 맞춤 관리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판매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렉서스, 7세대 부분변경 'ES 300h' 사전 계약



렉서스코리아는 7세대 ES의 부분 변경 모델인 신형 ES 300h(사진)의 가격을 공개하고 27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ES300h는 2012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후 2020년까지 8년 연속 수입차 하이브리드 부문 베스트 셀링카에 선정된 바 있는 렉서스 대표 모델이다. 렉서스 신형 ES 300h의 가격은 렉서리 6190만 원, 렉서리 플러스 6400만 원, 이그제큐티브 6860만 원, F SPORT 7110만 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신형 ES 300h는 더욱 인상적인 스피드 그릴과 한층 진화된 예방 안전 기술 패키지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SS+), 사용 편리성을 강화한 12.3인치 대형 고해상도 터치스크린에다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기본 장착 등 안전 및 편의사양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ES 300h F SPORT 모델은 F SPORT 전용 스피들 그릴과 19인치 블랙 마그넘 휠, F SPORT 전용 스포츠 시트, 전자제어 가변 서스펜션(AVS), F SPORT 퍼포먼스 뎀퍼 등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더욱 스포티하게 업그레이드했다.

제로백 5.2초...EV6, 듀얼모터 성능에 감탄

(GT-Line 롱레인지 4WD)

스포티한 고성능 이미지 디자인 환산 300마력 넘는 압도적 파워 1회 충전 주행거리 403km 충전

기아 첫 전용 전기차인 EV6를 마주하면 독창적이면서도 스포티한 크로스오버 디자인에 감탄하게 된다. 현대차 아이오닉5가 미래지향적인 전기차의 느낌을 강조했다면, EV6는 거기에 스포티한 고성능의 이미지를 더해 매력을 극대화했다. EV6 GT-Line 롱레인지 4WD 모델을 서울 성수동에서 포천까지 왕복 120km 구간에서 시승했다.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

시승 모델은 EV6 최상위 트림인 GT-Line 롱레인지 4WD(듀얼모터) 20인치 타이어 장착 모델이며 하이테크, 선루프, 메리디안사운드, 빌트인킵, 오토라 블랙필(색상) 등의 옵션을 추가해 차량 가격은 6262만 원이다.

실내에 앉으면 전기차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기아의 디자인 역량이 놀라게 된다. 내연기관차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EV6만의 독창성으로 가득 차 있다.

스포티한 감성이 느껴지는 GT-Line의 D컷 핸들과 스퀘어 시트, 전용 도어 트림,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 독특한 위치에 마련된 시동버튼과 전자식 변속 다이얼, 12.3인치 클러스터와 AVN이 결합된 통합 커브드 디스플레이 등이 익숙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감성 만족도를 높여준다. 실내 디자인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완성도를 보여준다. 시승 출발을 위해 차 문을 열고 시트에 앉는 순간 디자인에 매료당해 "당장 계약하



기아 EV6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혁신적인 실내와 디자인으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다. 제로백 5.2초의 고성능과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403km의 넉넉한 주행 거리를 동시에 구현해 매력을 더했다. 사진제공 | 기아

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GT-Line의 외장 디자인 역시 바디 컬러와 통일된 휠아치 몰딩, 전용 프론트 및 리어 범퍼 디자인을 통해 일관된 모델과는 또 다른 감성을 완성했다.

●주행 거리와 성능의 적절한 조화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모델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03km다. 2WD 모델의 경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470km인데, 4WD 모델은 듀얼모터가 발휘하는 월등한 성능을 위해 주행 가능거리를 약간 희생했다.

EV6 롱레인지 4WD 모델의 제로백은 5.2초다. 내연기관의 경우 보통 제로백 5초대면 고성능차라고 불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운전실력을 가진 이들이 펀드라이빙을 만끽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수준의 성능이다.

기아 EV6, 롱레인지 GT-Line 4WD 주요 제원	
전장(mm)	4,695
전폭(mm)	1,890
전고(mm)	1,550
휠베이스(mm)	2,900
배터리 용량(kWh)	77
모터 최대 출력(kW/ps)	239/325
모터 최대 토크 (Nm)	605
1회 충전 주행 거리(km)	403
가격(만 원, 세제혜택 전)	6,049

뛰어난 정속성을 갖춘 EV6의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아주면 환산 출력으로 300마력이 넘는 압도적인 파워를 경험할 수 있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차의 특성상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고속 직진 주행이나 고속 코너링 시 스포츠카 수준의 안정감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전용 플랫폼 E-GMP 적용을

통한 넉넉한 실내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성과 고성능차에 대한 로망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

내연기관 엔진 사운드에 대한 갈증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e-ASD)으로 풀어냈다. 가슴 뛰게 하는 폭발적인 사운드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운드 없이 속도만 올라갈 때 느껴지는 이질감을 없애고, 속도에 따른 주행 감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진화된 편의사양도 EV6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준다. 새롭게 적용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더 안전하고 쉬운 길찾기를 도와준다. 직각주차, 평행 주차는 물론 스마트키를 통해 차를 출차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덕에 주차 스트레스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포천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완성차업계 파업 없다? 4개사 임단협 마무리

현대차·기아·한국지엠·쌍용차 르노삼성만 노사간 입장차 진통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 쌍용차가 파업 없이 올해 임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자동차업계에서 매년 관행처럼 이어졌던 파업을 없애는 전화위복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10년 만에 부분급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했으며, 30일 오후 2시 광명 오토랜드에서 조인식

을 갖는다. 기아 노사는 예년보다 교섭기간을 크게 단축해 지난 6월 17일 상견례 이후 2개월여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올해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아에 앞서 현대차와 쌍용, 한국지엠도 파업없이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쌍용차는 12년 연속, 현대차는 3년 연속 무파업이다. 특히 한국지엠의 경우 1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파업 없이 교섭을 이어가 19일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65.7% 찬성률로 가결됐다.



기아 캐뉼 한국지엠 사장(왼쪽)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김성갑 지부장이 2021년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지엠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는 아직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25일 13차 본협상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동결 보상금 규모에 대한 간극이 커 잠정합

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노조는 2년 동안 기본급이 동결된 만큼 기본급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회사 측은 상반기 내수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7.8%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하고 있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올해가 자동차업계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의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협상이 들어갔던 완성한 에너지와 열정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투입됨으로써 이것이 다시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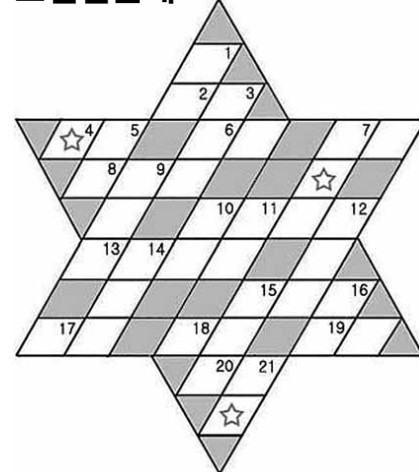
		8			7			
	6		2		1		3	
4	3			5			9	6
	5			3			8	
		3	5		2	6		
	8			1			7	
3	4			2			6	7
	7		3		5		2	
		2			8			

			7	4	8			2
	9		8		1		7	
		7					8	
	5			6				2
	4	6		2		5		7
	8				3			5
		3						1
			4		7		2	9
		5		1	8	3		

■ 스도쿠정답

8	9	6	9	7	1	7	2	6
1	2	7	5	6	8	9	7	8
7	9	6	8	2	1	5	7	8
5	4	7	1	9	6	8	2	3
6	7	9	2	5	8	1	7	9
2	8	1	6	8	7	4	5	9
9	6	2	7	5	8	1	7	9
8	8	5	1	7	2	7	9	6
7	1	2	8	9	6	8	2	5
7	9	7	8	1	6	5	9	2
1	2	8	9	6	2	7	8	1
2	7	8	7	9	8	1	6	5
7	8	1	6	5	9	2	7	8
9	6	2	7	1	8	9	7	6
8	2	6	8	7	1	5	1	9

■ 낱말문제



■ 가로열쇠

- 02. 가슴과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04. 좋은 기회.
- 06.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고향을 이르는 말.
- 07. 근심하거나 걱정할.
- 08. 적으로 여겨 봄.

- 10.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
- 13. 많은 사람이 발을 맞춰 나아감.
- 15. 몹시 사나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7. 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 18. 비과학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 19.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를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봄.
- 20. 어떤 일을 꾸미는 꾀.

■ 세로열쇠

- 01.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의 우두머리.
- 03.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는 모양.
- 05.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 07. 잘 우기는 성질.
- 09. 작은 들보의 하중을 받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큰 들보.
- 10. 공연이 상업적으로 큰 수익을 거둠.
- 11. 환자의 얼굴빛, 눈, 입 등을 눈으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